

문화선전대의 추억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총무국장 정희섭

1956년 경기 포천생.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총무부장, 극단 연장 대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총무국장, 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연 안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제목부터 정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아무데서나 별다른 무대 장치 없이 간단한 도구와 의상,
그리고 소규모 인원이 여러 역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탈을 써서 인물의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공연,
당연히 마당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군대 경험이나 감옥 이야기도 지나고 나면 즐거운 추억이 된다. 지난 엄혹한 시절의 이야기들도 당시에는 힘들고 괴로웠고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했으며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지금부터 내가 떠올리려는 이야기는 당시에도 고생보다는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었으니, 관계한 이들의 추억담으로만 두기 보다는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때는 1987년 4월 중순 어느날,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으로 정국이 급변한 가운데, 운동의 열기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였다. 당시 나는 임진택 선배가 대표로 있던 극단 연희광대패의 후배들(김영만, 장창익, 조의자, 김광석, 이관학, 김경숙)과 농민극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 때 준비하던 작품은 <막걸리 총각>이었는데, 장가가기 힘든 농촌의 노총각을 주

인공으로 해서 농민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이었다. 처음 계획은 이 작품을 상반기 대학 축제 기간에 순회 공연한 후에 여름 농활 기간에 농촌 현장을 순회한다는 것이었다. 마침 나는 3년여를 근무하던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의 상근 보직을 그만둔 데다, 그런 현장 문선 공연을 꼭 해 보리라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여건이 잘 맞아떨어진 셈이었다.

우리는 대본을 만들고, 풍물, 춤, 민요 같은 기량을 연습하면서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학습도 병행하였다. 3호선 옥수역 부근에 있던 극단의 연습실은 우리들의 아지트였으며 늦게 까지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특하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연습실에서 단체 합숙을 하곤 했다.

하지만 상황은 급속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물고문으로 학우를 잃은 학생운동의 열기가 터져 나왔으며 고문 은폐 시도가 폭로되면서 사회운동의 열기도 들끓었다. 그런 힘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가 결성되었다.(결성식에 다녀온 김학민 선배는 이를 '신간회 이후 최대의 좌우합작'이라 표현했다.) 노동운동도 가열차게 벌어졌다. 정국은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투쟁의 열기가 달궈지면서, 국민적 민주화 열기를 담아 낼 수 있는 광범위한 틀도 서서히 형성되어 나갔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공연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계획한 것과는 달리 민주화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그에 발맞춘 다른 작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마침 당시 민통련 본부는 국민적 민주화 열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순회 강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문선대 공연을 결합한다는 구상을 하고, 우리에게 그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이명식씨로 기억된다.) 우리는 이 제안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문선대 공연에 맞는 작품을 새로 짜야만 했다. 더구나 당시 이애주 선배의 '바람맞이' 공연이 큰 화제가 되어 덩달아 우리들의 분위기도 고양되었다. 당시 우리는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고양하여 구체적 행동으로 이끄는 한편, 구체적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까지 논의를 했으나 정국이 워낙 급변하는 가운데 작품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6월 항쟁이 터졌다. 우리는 공연 준비보다 시내를 돌아다니며 가투에 가담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하철이나 거리의 군중이 모인 곳에서 아구스트 보일이 한 것 같은 '연극적 선동'을 실험해 보기도 했다. 명동성당에 가서 합류하지는 의견을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6·29 선언이 있었다. 정국은 급변했다. 이현열군의 장례식이 열린 연세대와 시청 앞의 경험은 열린 공간의 대중들 속에서 문화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했다. 곧 이어 채광석 선배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렀다.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운동의 대세가 크게 갈라지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아닌데, 진짜는 이제부터인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 이거다 하고 제목부터 정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제목과 함께 주제 의식과 작품의 방향까지 잡아 놓고 다음에는 구성에 들어갔다. 우선 생각한 것은 공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문제였다. 아무래도 안정된 분위기에서 공연을 펼칠 상황은 못 될 거라는 판단이 들었으며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데서나 별다른 무대 장치 없이 간단한 도구와 의상, 그리고 소규모 인원이 여러 역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탈을 써서 인물의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공연, 당연히 마당극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 공연을 제대로 펼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할 것이며 그나마 도중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탈춤과 같이 각기 독립적이되 전체적 주제 의식에서는 하나로 연결되는 구성이 필요했다. 각기 15분 내외의 완결적인 내용을 가진 4개 정도의 마당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큰 틀을 설정했으며,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공연단 구성은 내가 연출겸 매니저 노릇을 했고, 제일 선배인 김영만이 큰 언니로 공연단을 이끌면서 신과 마당의 변사 역할을 맡았다. 지금은 영화제작자로 활약 중인 이관학이 약장사 마당에서 뱀장사를 연기했으며, 장창익은 전두환 등은 악역을 주로 맡아 했다. 여자 배우는 조의자 1명이 도맡아 했으며, 필요할 때는 김광석이 여자역을 겸하여 극의 또다른 재미를 주었다. 김경숙은 뒷패 역을 맡아 고생했다.(당시 그녀의 부친이 경찰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드러나게 활동할 수가 없었다.) 배우들 모두 마당극 기량과 풍물 기량을 잘 갖추고 있었으므로 길놀이와 연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어느 날 연습 때는 노래를 부를 때 관객을 이끄는 몸짓에 약하다고 들었던 이명식이 직접 시범까지 해가면서 가르쳐 주던 생각이 난다.

지금은 돌아가신 안희대 선배가 늘 흰 장갑을 준비해 다니면서 집회가 벌어지면 앞에서 몸짓으로 선동한다는 이야기도 생각한다. 내가 걱정했던 것은 마이크도 없이 계속되는 공연과 피로로 배우들의 목이 가면 어떻게 하나였는데, 배우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적당히 목 쉼 소리로 던지는 대사가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호소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또 공연단은 9인승 봉고차로 이동했는데, 기사까지 팔 명이 탄 데다 소품이며 의상 등이다 개인 짐까지 잔뜩 실으니 정말 비좁았다. 거기다 팔월에 에어컨도 없이 다니려니 정말 더웠다.

우리는 공동창작(각자 마당별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대사와 동작으로 재

구성하면서 대본 작업과 동시에 실제 연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익숙했으며, 그 이전 두 달 이상을 함께 뒹굴며 지내 온 터라 호흡이 척척 맞았다. 그렇게 해서 첫째마당 길놀이+신파, 둘째마당 약장사, 셋째마당 전두환 부부의 시찰, 넷째마당 민중들의 봉기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작품이 쉽게 나오지를 않았다. 가장 열띠게 토론이 벌어진 대목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아 내는 것이었다. 당시 터져 나온 노동자 대투쟁을 작품으로 담는 것은 문화패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으되, 우리들의 여건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미 주어진 공연 계획은 노동자 관객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4남 2녀의 적은 숫자와 한정된 공연 장비로는 노동자 투쟁을 제대로 그럴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거기다가 노동자대투쟁의 정서적 울림이 너무 컸으므로 제대로 담아 내려면 전체 구성상의 흐름이 깨질 위험성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노동자 마당을 만들어 보려했으나 제대로 작품이 빠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예정된 출행 일자는 다가오고 결국 작품을 완성하지도 못한 채 순회 공연에 나서게 되었다.

잡은 일정은 8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를 떠돌며 공연하는 것이었는데, 8·15를 기준으로 해서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된다. 앞부분(8월 6일~14일)은 중소 도시에서 민통련과 지역단체 공동주최로 시국 강연회 혹은 시민대토론회와 결합하여 공연이 이루어졌고, 뒷부분(8월 17~29일)은 군면 단위의 국민운동본부지부 결성식 집회에서 공연이 되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8월 6일 서산 - 들판에서 농민과 청소년 약 4백명을 대상으로 '막걸리 총각'을 공연.
- 8월 7일 마산 - 우천과 원천봉쇄로 12일로 연기되었다.
- 8월 8일 진주 - 경상대에서 시민, 학생 6백명을 대상으로 공연
- 8월 10일 대전 - 한남대에서 시민, 학생 1천5백명을 대상으로 공연하였으며 처음으로 가두시위가 공연에 이어 벌어졌다.
- 8월 11일 인천 - 주안1동 성당에서 시민, 학생 7백명을 대상으로 공연
- 8월 12일 마산 - 경남대에서 시민, 노동자, 학생 5천명을 대상으로 공연. 길놀이패로 시위에 참여했다.
- 8월 13일 춘천 - 강원대에서 시민, 학생 5백명을 대상으로 공연
- 8월 14일 원주 - 원동성당에서 시민, 학생 3백명을 대상으로 공연

- 8월 15일 서울 - 8.15 행사 후 한강 고수부지에서 공연
- 8월 17일 강릉 - 시내에서 길놀이 도중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바로 풀려나 옥천동성당에서 시민, 학생 2백명을 대상으로 공연
- 8월 20일 나주 - 농민 약 3백명이 모여 나주성당까지 2킬로미터 가량 길놀이를 하고, 공연을 하려 했으나 폭우로 공연을 하지 못했다.
- 8월 22일 보성 - 농민 3백명과 함께 길놀이, 공연, 시가행진
- 8월 24일 완도 - 농민 4백명과 함께 길놀이, 시가행진. 우천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했다.
- 8월 25일 경주 - 동국대에서 시민, 학생 4백명을 대상으로 공연, 가두행진 길놀이
- 8월 26일 포항 - 구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노동자, 시민 1천5백명을 대상으로 공연, 가두행진 길놀이
- 8월 29일 완주 - 고산성당에서 3백명을 대상으로 공연. 공연 후 이어진 가두시위로 고산 시내가 봉쇄되어 갇혀 있다가 빠져 나왔다.

특히 기억이 나는 공연들이 있다. 첫번째 장소인 서산에서는 작품을 완성하지도 못한 채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역 주최측에서 이애주 선배의 '바람맞이'가 온다고 홍보를 한 모양이었다. 우리는 서산 시내부터는 주최측이 준비한 트럭을 타고 공연 장소로 이동했는데, 그 점을 걱정하며 꽤 오랜 시간을 간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시내에서 떨어진 들판이었던 것 같다. 도착해 보니 이미 바람맞이가 무척이나 유명해진 탓인지 무척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이애주의 바람맞이가 아니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고, 그냥 가버린 사람도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완성도 안된 작품을 공연할 수는 없었으므로 농민극인 막걸리 총각을 공연했는데, 처음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극이 진행될수록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던 기억이 난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연하니 쉽게 공감할 수 있었으리라.

처음 작품이 공연된 것은 진주 공연 때부터였다. 우리는 서산 공연을 마치고 마침 하루의 여유가 생겨서 계속 작품을 다듬어 나갈 수 있었는데, 진주 공연에 대한 반응이 꽤 좋아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6·29 선언을 풍자한 "민주화는 신발이 아니다."라는 대사에서 기대했던 대로 관객이 웃어주었고, 둘째마당인 약장사(뱀장사) 마당에서 실감나게 연기하느라 각목으로 이마를 쳐서 각목이 부러지는 장면에서 각목이 제대로 부러져 준 것(그 장면을 연기한 이관학의 이마는 성할 날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비약'보다 '광사' (광주항쟁

사)가 최고라고 하는 대목에서 관객이 폭소와 함께 (나중에) 그 뜻을 알아차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 공연은 마침 대학교 안에서 열린 데다가 학생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투쟁의 열기가 아주 높았다(원래 계획에 있었겠지만). 공연 후 시위가 벌어졌는데, 한밤중 가두에서 화염병이 터지는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우리는 정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담을 넘어 나와야 했다.

공연은 처음부터 그때그때 상황의 변화나 이슈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였다. 첫째마당 신파는 변사의 서사가 주가 되므로 탄력적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 충북에서 문송면 군이 경찰차(닭장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그렇게 해서 알리면서 “송면이를 살려내라!” 하고 구호를 외치는 식이었다.

특히 공연 내용의 메시지가 전체 행사의 핵심인 강연 내용과 맞아떨어져야 했는데, 강연이 먼저 있는 경우 나는 강연을 듣고 핵심적인 내용을 즉시 대사로 만들어 적절한 마당에서 삽입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예컨대 마산에서는 문익환 목사님의 강연이 있었는데, 장소가 장소인지라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두 분(와이에스와 디제이)이 단합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지라 공연에는 지역 감정을 넘어서자라는 내용을 만들어 넣었다. 그야말로 엄청난(스탠드를 꼭 매운, 5천명!)관중들이 문 목사님의 강연을 경청하고 열띠게 반응했다. 또 마이크가 없어서 대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데도 공연에 호응을 해 주었다. 관객들의 웃음이나 구호가 시간차를 두고 스탠드 아래에서 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목격하며 마당극의 반은 관객이 끌어간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준비했던 모금함이 꼭 차서 급히 라면 박스로 모금함을 몇 개 만들어 돌린 기억도 난다.

서울에서의 공연은 민통련 등 운동권 관계자도 많이 참석한, 말하자면 중간 보고회 비슷한 공연이었는데, 공연 후 뒷풀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비판받은 기억이 난다. 전체 운동에서 선거 전술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선대가 앞서 가느냐 하는 요지였는데, 나로서는 민통련을 대표하는 문 목사님의 강연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므로 다소 부당한 평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강릉 공연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공연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릉에서 그 정도의 집회가 열린 것은 해방 후 처음이었다는데, 그래서인지 경찰측의 대처도 다른 곳과는 달랐다. 시내에서 길놀이를 하면서 행사장까지 가는 도중에 경찰이 길놀이를 하던 공연단을 모두 연행했다. 경찰서에서 어디서 무엇하러 왔는지 조사를 받는데, 경험으로 터득한 예상(?)과 달리 조

사 강도가 약했다. 나는 매니저로서 서울 극단에서 공연을 하러 왔으며,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 길놀이를 했다고 하니 그 이상 캐묻지도 않았다. 조금 있다기는 “예술하는 분들이시군요.” 하며 미안하다고, 예정된 공연 시간이 지났으므로 차로 모셔드리겠다고 하면서 사이드 카를 앞세우고 성당까지 태워주기까지 했다.(결국 경찰이 길놀이를 도와 준 셈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안기부에서 풀어주라고 했었는데 그 덕도 본 것 같다.

하지만 그 악발도 ‘교통’에는 통하지 않았다.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오는 도중 우리의 봉고차가 과속을 했는데, 아무리 본서로 연락해 보라고 해도 봐주지 않았다. 김근태 선배가 재판판을 받으면서 “교통법은 지켜야 한다.”는 말로 딱지 떼 기사님을 위로했던 기억이 난다.(후반부에 우리와 동고동락한 봉고차의 김승기 기사는 택시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분이었는데 나중에 한겨레신문의 기사가 되어 만난 적이 있다.)

포항 공연도 기억에 남는다. 구시외버스 터미널 자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시내 한복판이어서 지나다니는 차량들의 소음 때문에 대사가 잘 들리지 않자, 누군가 나가서 도로를 막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공연장 분위기를 정비해 주었고, 공연 후 예정에도 없이 관객들과 뒷풀이를 신명나게 했으며 그 흥으로 밤늦게까지 길놀이를 하면서 포항 시내를 누비고 다녔다.

보성에서의 공연은 가농 농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소나기가 오는 중에 행사가 있었는데, 강연은 성당 안에서 할 수 있었으나 공연은 그리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중에 마침 비가 그치자 가농 회원들이 농민가를 부르며 관객을 밖으로 유도하여 질척거리는 마당에 판을 만들어 주어서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완주 고산성당에서의 공연은 그야말로 마지막다운 공연이었다. 고산성당이 지역 농민운동의 근거지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시골 마을 치고는 많은 농민들이 모였다. 공연 후에는 준비된 막걸리와 떡을 들면서 한껏 잔치 같은 분위기에서 흥겹게 놀았는데, 차를 타고 성당을 빠져 나오려니 웬걸, 격렬한 가두시위가 벌어져서 고산 시내가 완전 봉쇄되었다지 않은가. 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모든 도로를 봉쇄한 채 시위는 그냥 방치하는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때문에 반나절 이상을 고산에 묶여 있다가 저녁 늦게야 봉쇄가 풀려서 서울로 떠날 수 있었다.

나는 9월 이후에도 공연을 계속하려 했지만 이미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은 그런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공연에 참가했던 배우들은 전태일 열사 16주기를 맞아 광산 지역의 노동 문제를 다룬 노동극 ‘막장을 간다’ 순회 공연에 나서면서 또 한번 유랑 광대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민족극의 중추가 되어 활발히 활동하다가 생활 현장에서 혹은 영화편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다!”라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6·29 이후 분명 달라졌으나 모호했던 그 때,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려 했던

광대의 정신을 이어가리라 다짐한다.

영만아, 창익아, 관학아, 의자야, 광석아, 경숙아, 그리고 명식아,

우리 다시 한번 유랑 광대가 되어 봄 직하지 않은가!